

전북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

최영일 순창군수 “전북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큰 걸음 내딛을 것”

순창군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별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특별자치도 특례’란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적 테두리와는 다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한다.

순창군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태경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된 바 있다. 이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제주를 비롯한 앞선 특별자치도 사례를 비취 볼 때 앞으로 이어나갈 특례의 구체화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타 시군에 한발 앞서 2차 특례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순창형 제2차 특례’ 발굴은 순창군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가칭)’, ‘경전·양진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지원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순창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특례들을 오는 5월8일과 9일에 예정된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거쳐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부서장 보고회를 통해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영일순창군수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위상을 달리 한 만큼 순창군 고유의 맛과 멋,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 전략산업인 농·생명경제, 웰니스산업, 산악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마음으로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볼꽃이 만개한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 <사진=임실군청 제공>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 볼꽃 만개

임실군, 수선화, 튜립 각각 2만여본 등... 관광객 탄사 쏟아져

임실군이 옥정호 순환도로 변 볼꽃이 만개한 가운데 출렁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봉어섬 생태공원에도 볼꽃들이 활짝 피면서 관광객들의 탄사가 쏟아지고 있다.

군은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계절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1일 봉어섬 생태공원 개장에 맞춰 편지와 데이지, 무스카리, 아네모네 등 2만4,000여본의 볼꽃을 화단과 화분에 식재했고, 꽃밭을 등선에 맞춰 설치해 방문객들의 봄나들이를 반겼다. 그 덕에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목련을 시작으로 개나리에 이어 3월 말 이 되며 벚꽃축제와 더불어 볼꽃이 만개했고 4월이 시작되면서 수선화와 튜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군은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꽃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위가 아직 물러나지 않은 3월 초, 서리로부터 꽃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온 작업의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생태공원 안에는 수선화, 튜립이 각각 2만여본, 작약 2만

4,000본이 조성되어 있다. 올봄에는 산책길 주변으로 작약 1,200본을 추가 식재해 5월이 더욱 기대된다.

또한 식재 조성뿐 아니라 화단 곳곳에 다양한 조경 소품들을 배치하여 아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수변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 옥정호 출렁다리와 볼꽃으로 단장한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현재까지 7만 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볼꽃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덕분에 옥정호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등 지역 상권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봉어섬 생태공원은 보안 사업을 통해 숲속 도서관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완, 숲속 교실 조성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듭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의 행복한 미소들을 마주할 때마다 봉어섬 생태공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초중고생 대상 구강보건사업 실시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4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방문해 구강건강의 중요성, 치아우식증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불소양치 용액을 제공하고,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소 바니쉬 도포를 실시해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불소 양치 용액은 0.2% 불소(불화나트륨) 용액으로, 주 1회 기밀하고, 불소 바니쉬 도포는 전용 브러시로 불소를 매니큐어 바르듯이 치아 표면에 골고루 얇게 도포해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620-7975~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쾌적한 수목 환경 조성

임실군이 이번달 3주간 쾌적한 수목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미관을 향상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내 소나무 90여 그루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소나무 병충해 방제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지치기 작업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했다.

심 민 군수는 “생활체육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제 기간, ‘춘향 동행 페스타’ ‘동행축제’ 협력

춘향제전위위, 5월 10일 개최

춘향제전위원회는 춘향제 기간, 남원 지역 상가에서 다양한 특산물과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춘향 동행 페스타’를 동행 축제와 함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94회 남원춘향제는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 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와의 협력을 통해 춘향제 기간 지역 상인들과 축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된다.

먼저 음식점,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 페스타 할인 매장이 참여한 할인행사가 예정되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으로 동행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제전위에 따르면 페스타 할인 매장에서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춘향제 기간 소원 메시지가 적힌 소원 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춘향 동행 페스타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춘향제 홈페이지에 참여 업체 정

보 및 판매상품 할인율, 이벤트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업체임을 알 수 있도록 옥외 광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춘향제에서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임대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밀제 1만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5782)로 문의하거나 남원춘향제 홈페이지(http://www.chunhyang.org)에서 안내하면 된다. 제전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춘향제 관광객에게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을 높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남원시는 4월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대형산불 방지에 대응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 산불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시 7개 관계부서와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소방서, 남원산림조합, 한전 남원지사, 국립공원공단 전북사무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4월은 대형산불 발생에 취약한 시기로 최근 전국 곳곳에 14건의 산불 발생이 있었고, 4월 8일 전국(제주도 제외)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은 협의회에서 유관기관별 협조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발생 시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학교 교장 대상 소통 간담회 가져

남원시, 학교 교장 대상 소통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11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교(원)장들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남원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원인재학당 건립, 소프트웨어 미래융합사업 운영 등 교육 현안을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교장은 남원 교

육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시의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학생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희망했다.

마무리에서 최 시장은 “1년의 투자로 농사를 짓고 10년의 투자로 나무를 심고, 백년의 투자로 사람을 키운다는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남원의 미래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